

ECONOMY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광주·전남 15개 금융기관 청년취업 돕는다



코스피 또 연고점 '3180원대' 국내 시총 첫 3000조원 돌파

10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코스피가 반도체주 등 강세에 힘입어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49p(1.58%) 오른 3,183.23에 장을 마치며 전일 기록한 증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갈아치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지난 2021년 9월 7일(3,187.4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5.0원 내린 1,370.0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총합은 3020조769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30일 광주시청 시민홀서 합동 취업멘토링 작년부터 7개 늘어...현직 1대1 상담·특강

광주·전남지역 15개 금융 공공기관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30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광주·전남 15개 공공기관 합동 취업멘토링' 행사를 개최한다

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광주·전남 지역에

본부를 둔 12개 금융·고용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 지난해보다 7곳이 늘었다. 취업멘토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기관별 1대1 멘토링이 제공되며, 참가자는 한 기관당 약 15분간 현직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멘토링 외에도 면접 노하우를 안내하는 취업 특강, 청년 고용정책 안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행사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25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참여기관이 지난해 첫 행사 때보다 대폭 늘어 지역 청년들에게 더 폭넓은 취업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비아농협 조합장 재선거서 최용환 당선 "조합원과 현장서 소통...책임경영 실천"

광주비아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최용환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10일 광주비아농협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조합장 재선거는 전체 조합원 1332명 중 1117명이 투표에 참여해 83.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효표 1116표 가운데 최용환 후보는 536표를 얻어 조합장에 선출됐다. 최용환 당선인은 조합원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조합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변화가 곧 기회를 받고, 조합원과 함께 화합과 통합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해 조합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농업환경 변화에 발맞춘 맞춤형 지도사업과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겸손하고 깨끗한 조합장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실천하겠다"며 "조합원의 행복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용환 신임 조합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수료했으며, 현재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다. 그동안 광주비아농협 비상임감사와 대의원, 농촌지도자광주광역시연합회 사업부회장 및 감사, (사)한국새농민중앙회 활동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농업·협동조합 분야 경험을 쌓아왔다. 이승훈 기자 photo25@



광주신세계 본관 8층 코지네스트 매장에서 직원이 냉감소재 침구류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열대야에 냉감소재 침구류 불티 광주신세계 코지네스트·더조선포털 등 매출 쑥

이른 폭염에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냉감소재 침구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과 8층에 위치한 '코지네스트'는 파워를 냉감소재

로 유명하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 6월 매출이 전년 대비 20% 넘게 성장하며 폭염을 이겨내려는 고객 방문이 활발하다. 오는 14일까지 블랙데이 할인을 통해 전 품목 50% 할인을 진행한다.

호텔 침구류의 대명사인 '더 조선포털'에서도 냉감 이불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원터 냉감 차림이불은 봉제선이 보이지 않는 무봉제 스타일로 앞면은 실크 느낌의 텐셀 100%, 몸매 닿는 면은 시원한 냉감 원단으로 제작돼 쾌적한 수면을 도와준다. 광주신세계 더조선포털은 냉감 이불의 인기 덕분에 6월 매출 목표치를 150% 넘게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대용 기자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 100%~80%

본인부담금 : 0%~2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 (매일)

웃음치료 (외부강사)

간호사 케어

신속 고급 실내

음악 (외부강사 초빙)

물리치료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 (내남동)

세계 최초 '자동전환 하이브리드 열전 냉각기술' 개발

박창주 한국광기술원 박사 등 연구...기술력 국제적 인정

한국광기술원이 세계 최초 '자동전환 하이브리드 열전 냉각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열 부하 조건에 따라 수동·자동 냉각 모드를 자동 전환하는 기술로,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과 냉각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번 기술은 국제공학저널 Results in Engineering (IF 7.9, JCR 상위 3.1%)에 논문으로 게재되며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제목은 'Switchable thermoelectric cooler with radial heatsink for dual-mode thermal management system'이며, 한국광기술원 모빌리티 조명연구센터 박창주 박사(강유림 1저자·사진)와 박양규 교수(전남대)가 연구를 주도했다. 열전 냉각 시스템은 내부 온도 변화에 따라 자연대류 기반의 수동 모드와 펌터 소자 및 팬을 활용한 능동 모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소비전력 74.4% 절감, 열저항 50% 개선, 성능지표(COP) 1.81배 향상 등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다. 해당 기술은 행정안전부 '석유화학 플랫폼 폭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열티모달 전서 기반 AI 방폭시스템 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개발됐다. 고집적 LED 모듈, 전기자 배터리, 고열 발생 정밀 센서 등 고성능 열관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박창주 박사는 "향후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가전 등 실용화 수요가 높은 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수다도자기, 소파브랜드 자코모와 협업 전시 광주디자인진흥원 육성...12월까지 남양주 플래그십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우수공예품인 '수다도자기(대표 이영순)'가 소파 전문브랜드인 '자코모(JAKOMO)'와 함께 소파와 일상의 관계를 조명하는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쉬며 살며 있는 나의 소수주'라는 주제로, 일상속에 가까이 있지만 미처 돌아보지 못한 소중한 삶의 공간인 '소파'를 통해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담아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광주공예품마케팅판매지원사업'의 국제전시 참가지원을 통해 세계적 공예·인테리어 박람회인 파리 메종&오브제(Maison&Objet Paris)에 최근 2년 연속 지원사업에 선정됐던 이영순 대표의 역량과 자코모간 협업으로 이뤄진 특별한 전시다. 전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남양주에 위치한 자코모 직영플래그십 남양주 본점 디자인하우스 2층 갤러리관에서 진행된다. 이영순 수다도자기 대표는 "숨 가쁜 일상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정한 쉼은 오히려 치열하게 얻어내야 하는 시대"라며 "가득 찬 것을 털어내고, 서로 다른 색과 기억을 보듬으며 말랑말랑해지는 공간에서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나만의 작은 쉼터에서 쉬고, 살고 있는 공간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수다도자기 고유의 철학이 담긴 콘텐츠가 국제전시 참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과의 접점을 만들고, 국내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공예 작가들의 실질적 판로 확장 및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외 유통망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글로벌 공예 전시 연계, 로컬 브랜드 협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공예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고 있으며, 올해도 세계 최대규모 인테리어 박람회인 파리 메종&오브제(Maison&Objet Paris)에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박람회의 중심관으로 불리우는 'CRAFT'관에 전시참가할 예정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